‘제주의 딸’ 김은이 동아무용콩쿠르 금상

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
한국무용 창작 부문 1위
4·3 소재 ‘무명천의 애가’
“진실된 춤 추는 무용수로”

김은이씨.

제주 출신 김은이(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 무용원 실기과 한국무용 전공)씨가 국내 최고 권위의 제50회 동아무용콩쿠르에서 한국무용 창작 부문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대회 본선에서 김은이씨는 일반부 한국무용 창작부문에 출전해 제주4·3 후유장애인 ‘무명천 할머니’의 비극적 생애를 담은 ‘무명천의 애가(哀歌)’를 무대에 올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2004년 별세한 ‘무명천 할머니’ 진아영씨를 다룬 자료를 찾아 읽고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진아영 할머니 삶터’를 방문했다.

김씨는 콩쿠르를 마친 뒤 30일 고향에 들렀는데 이날도 진아영 할머니 삶터로 향했다. 김씨는 “제주에서 태어났다는 자부심과 함께 4·3을 마음에 새겨왔다”면서 “할머니를 통해 4·3을 춤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했다”고 말했다.

제주서중학교를 졸업한 뒤 국립국악고등학교로 진학한 김씨는 고교 시절에도 동아무용콩쿠르에 참가했지만 당시엔 예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다시 콩쿠르에 도전해 1등상을 거머쥔 김씨는 “본선에 진출했지만 수상 욕심은 없었다. 이제까지 연습한 기량을 보여주자는 마음뿐이었다”며 “결과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지도해준 장혜림·이고운 선생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제주무용교육원 원장이자 제주입춘굿, 제주비엔날레 퍼포먼스 등에 참여해온 제주춤예술원 부원장인 현대무용가 윤정애씨의 딸이다. 차세대 무용계를 이끌 재목으로 떠오른 그는 “앞으로 무대에서 진실된 춤을 추는 무용수가 되자는 생각이 더 커졌다”며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용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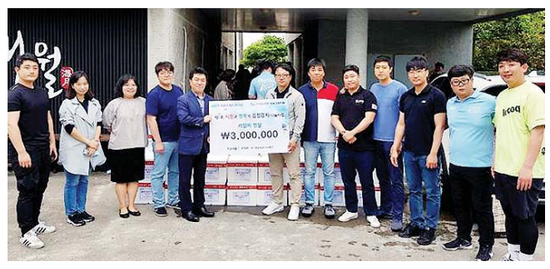
“어려운 이웃 위한 착한기부 확산되길” 강민숙 도의원 재난지원금 기부 동참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지난 28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흥식)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긴급재난지원금 80만원으로 구입한 손소독 물티슈 200개를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로 등교가 연기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내 문구점에서 구매해 마련됐다. 강민숙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와 기부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면서 “지역상권에서 구매한 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착한기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부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중한 마음을 담아 착한소비, 착한기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서귀포청년회의소 장애인에 김치 후원



JCI 서귀포청년회의소(회장 양두훈)는 지난 2월 계획했던 김치나눔행사를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5월 마지막주 주말인 30일 회원과 가족들이 모여 김장을 담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에 후원했다. 양두훈 회장은 “정성껏 버무린 김치를 드시고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주영락사회복지관 긴급생계비 지원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언)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노형동·연동 지역 저소득 위기 가구 14가구에 긴급생계비 42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긴급생계비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아 마련됐다.

김녕농협 김우진 계장 ‘농협인상’ 수상

제주농협은 ‘함께하는 농협인상’ 6월 수상자로 김녕농협 김우진(사진) 계장이 선정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김 계장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 맞춤 신소득 작물육성, 농가교육 및 영농지도지원 강화 등 농업생산성 강화, 농업인 복지 증진 사업 활성화 등을 인정받았다. 김 계장은 “제주농협을 대표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함께하는 농협인상’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농·축협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농협 구현 및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직원을 선발해 개인에게 수여하는 농협 최고의 상으로, 이번 달에는 김우진 계장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10명이 선정됐다.

장영주씨 돌하르방 스토리텔링 전자책

제주 아동문학가 장영주(64·사진)씨가 돌하르방 스토리텔링 전자책 20권을 시리즈로 제작했다.

이번 전자책은 돌문화 제주성 돌하르방, 돌문화 대정성 돌하르방, 돌문화 정의성 돌하르방, 돌문화 월드컵 돌하르방, 돌문화 제주스토리텔링 돌문화 공원, 돌문화 제주 스토리텔링 돌하르방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문화재인 돌하르방이 마스크를 쓴 것에서 영감을 받아 저자가 지금까지 조사, 기록, 사진 촬영했던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4개월에 걸친 보완 취재를 통해 만들어졌다.

장영주 작가는 현재 동화섬 대표, 한국해양아동문화연구소장, 도서(전자·개인)출판 영주 대표, 한국아동문학회부회장,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 평통자문위원, 통일교육위원 등을 맡고 있다. 그동안 펴낸 종이책만 150권에 이른다.

도청 참꽃회·제주캘리그라피 엽서 제작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성공직자회 ‘참꽃회’(회장 김현주)가 제주캘리그라피협동조합(대표 김효은)과 합동으로 좋은 글귀를 담은 엽서 30점을 제작했다.

참꽃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몸과 마음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청사 화장실 내에서 엽서를 선보일 계획이다. 작품은 예비사회적기업인 제주캘리그라피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캘리그라피 기법을 동원해 제주만의 특색을 살리고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밝은 분위기로 작업을 진행했다.

참꽃회는 올해 하반기 도청 여직원회를 대상으로 좋은 글 및 사진작품을 공모해 직원 솜씨를 활용한 또다른 모습의 캘리그라피 작품으로 청사 내 전시 및 화장실 작품 게첨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동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 참석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감사) 지난달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234차 이사회에 참석해 대교협 현안사항 등을 논의.

가파의용소방대·보건진료소 방문

◇오영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일 서귀포시 가파의용소방대와 가파보건진료소를 방문해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

지역사랑상품권 구입·소비 독려

◇김정환 이도1동장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약화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구입 및 소비를 적극 독려.

중앙병원·KB국민은행 건강증진 협약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이사장 김덕용)은 지난달 26일 KB국민은행 호남지역영업그룹(대표 왕덕봉)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건강 강좌·의료지원 서비스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 발전에 따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운송주선사업협회 이사장 이·취임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이사장 최양호)는 지난달 29일 제주라마다호텔 2층 추자홀에서 제10대 이사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회 제10대 이사장에는 최양호 그린해운물류공사 대표가 선임됐다.